

신성홀딩스, 한국실리콘 타고 비약

현대증권, 지분 20.16% 가치 1000억원 ... 한국실리콘 가치 6000억원

현대증권은 신성홀딩스가 2008년 75억원을 투자해 확보한 한국실리콘 지분 20.16%의 가치가 최소 1000억원으로 급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실리콘의 상장시기와 정확한 증설계획이 확정되면 가치를 가치산정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유지했다.

한국실리콘 지분 가치가 급등한 것은 전일 한국실리콘이 타이완의 네오솔라(Neo Solar)와 대규모 폴리실리콘(Polysilicone) 장기공급계약을 한 때문이다.

한병화 연구원은 “장기공급계약으로 연간 4000톤의 생산가능물량 대부분이 입도선매 됐다”며 “kg당 50달러 초반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았을 때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연간 약 5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폴리실리콘 생산기업들이 시장평균 대비 약 20-30%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새로 산정한 한국실리콘의 적정가치는 6000억원 이상(주가수익비율 12배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3대 주주였던 수성기술이 2011년 전환사채(CB)를 보유하게 돼 전환 후 신성홀딩스의 지분이 16.42%로 줄어들 것을 고려하더라도 신성홀딩스의 한국실리콘 지분 가치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4>